

# 호르무즈 해협 선별적 봉쇄 국면 3주 이상 지속뎌 생산비 5.4% ↑

산업부, 중동사태 국내 영향 분석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 평가  
3개월 이상 지속시 생산비 11.8%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선별적 봉쇄 국면에 들어 서면서, 한국 제조업 전반에 비용 상승과 공급망 충격이 동시에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나프타·헬름·무수암모니아 등 핵심 산업 원자재까지 영향을 받는 '복합 위기' 양상이다.

19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미국-이란 충돌과 호르무즈 리스크: 공급망 시나리오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호르무즈 봉쇄가 약 3주간 지속되는 단기 시나리오에서도 한국 제조업 생산비는 5.4%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봉쇄가 3개월 이상 이어지는 구조적 충격 시에는 최대 11.8%까지 확대될 수 있다.

보고서는 단기 공급 충격 시 유가가 배럴당 105~125달러, LNG 가격은 60~9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13개월)에는 유가 120~160달러, 장기적으로는 150~180달러(극단적 경우 2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같은 에너지 가격 급등은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를 직접 압박한다. 특히 석탄·석유제품과 전력·가스 부문은 생산비 상승률이 각각 최대 83.0%, 77.7%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투입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상, 비용 상승은 화학·금속·운송 등 연관 산업으로 연쇄 확산되는 구조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은 직접적인 에너지 투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핵심 원자재의 물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실제 충격은 추정치를 크게 상회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을 넘어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까지 동시에 연결되는 복합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로, 공급 차질 시 에틸렌·프로필렌 등 전방 산업 전반의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헬름은 LNG 생산 과정에서 회수되는 부산물로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이며, 무수암모니아는 비료와 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다.

이들 품목은 모두 중동 에너지 생산·정제 인프라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호르무즈 봉쇄로 원유·LNG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경우 동시에 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즉, 에너지 위기가 곧바로 산업 원자재 위기로 전이되는 '이중 충격 구조'가 형성된다는 의미다.

실제 중동 주요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절대적인 수준이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는 일부 파이프라인 우회 수출이 가능하지만, 처리 능력은 제한적이다.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사실상 전량을 호르무즈에 의존

하고 있으며, 카타르는 LNG 수출의 90% 이상이 해당 해협을 통과한다. 특히 LNG는 원유와 달리 대규모 비축이 어려워 공급 차질이 곧바로 글로벌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병목 구간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이번 위기를 언제든 반복되는 구조적 리스크로 평가했다.

문제는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더라도 이러한 구조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소·암모니아 등 차세대 에너지원 역시 생산 과정에서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원료 조달 측면에서는 여전히 중동 의존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원유·LNG 중심의 기존 관리 체계를 넘어 나프타·헬름·무수암모니아 등 연계 산업재까지 포함하는 '통합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에너지와 산업 원자재의 리스크가 동시에 상승하는 만큼,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략 품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결국 미국의 미국 안보우산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흐름 속에서 방산 분야 협력 수요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분야에서도 선제적 협력 기반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이란 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시세가 요동치고 있는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국제유가 벤치마크 브렌트유 선물, 원·달러 환율 시세가 보이고 있다. /뉴스

## 李 “경제 전시상황… 추경, 빠르게 처리”

>> 1면 ‘에너지 시설 타격…’서 계속

여기에 제롬 파월 Fed 의장의 통화긴축 선포 발언까지 겹치면서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8일(현지시간), 전장보다 768.11p(1.63%) 내린 4만6225.15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91.39p(1.36%) 떨어진 6624.70, 나스닥종합지수는 327.11p(1.46%) 하락한 2만2152.42에 장을 마쳤다.

아시아의 주요 증시도 줄줄이 하락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866.87포인트(3.38%) 내린 5만3372.53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장중 한때 2000포인트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1.10%), 선전종합지수(-1.67%), 홍콩 항셱지수(-1.

84%) 등도 하락세다.

우리 경제도 타격을 받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1.81포인트(2.73%) 내린 5,763.22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찍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9원 오른 1501.0원을 기록했다. 주간 거래 증가 기준으로 150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3월 10일(1511.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쟁 양상이 심각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침과 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엄중한 자세를 가져달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윤휘중 기자 yhj@

## 금융위, 은행·여전 등 업권별 리스크 대비

금융산업 영향 점검… 장기화 대책논의

금융위원회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업권별 리스크를 점검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제 유가와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19일 ‘업권별 리스크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사태에 따른 리스크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장기화 대비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시장은 중동사태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제 유가와 채권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등 복합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외화유동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환율이나 채권금리 상승 등이 업권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경우 보통주 자본비율(CET1)은 13.59%로 규제비율(8%)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외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규제비율 80%)도 지난해 2분기 152.7%에서 지난해 말 168.9%로 확대됐다.

보험은 키스(K-ICS)비율이 지난해 2분기 206.8%에서 같은해 3분기 210.8%로 상승했다. 지난해 3월 기준 100% 이상이 법적기준이며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는 만큼 충분히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분석이다.

참석자들은 또 국내 금융회사의 중동

지역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쳐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경우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환율·금리·유가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일일 점검한다. 또한 유가 민감 업종(정유·석화·항공 등)의 익스포저를 지속 점검하고, 업종의 수익성 악화 및 신용등급 하락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여전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어 대부분 여전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인 만큼 채권시장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각 회사들은 은행 차입과 자산유동화증권(ABS), 기업어음(CP) 등 대체 조달 수단을 확보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중동지역의 국내 기업·선박 보험가입 현황도 점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질적으로 달라진 국내 금융산업·시장 환경을 고려 자본비율, 연체율 등 외형적 지표뿐만 아니라, 최근 자본시장 자금 유입 확대가 수신포에 미치는 영향 등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요인들을 종합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



metro

## 구윤철 “환율 대응 등 시장안정 조치 총력”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주제  
“유가 등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

정부는 환율이 국가 경제의 기초 여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 적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 시장이 외부충격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펀더멘털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각별히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원화의 흐름이 펀더멘털(경제의 기초 체력)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중동 상황 발생 이후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주가는 올해 초 대비 주요국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보여주는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도 안정적인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증시는 인위적 주가 부



구윤철(왼쪽 3번째) 경제부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

양을 지양하고,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특히 중복상장을 원칙 금지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금년 2분기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하는 등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를 위한 규정 정비 등 코스닥 시장의 역동성 제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은이 공조해 필요시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 시행하는 한편, 시장 상황에 따라 2분기에도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통해 국고채 등 공적채권 발행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4월 개시 예정인 WGBI(세

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인프라와 제도를 지속 점검·보완하겠다”고도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국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환율, 주가, 금리, 유가 등 다양한 변수의 충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확충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